

고교의 교훈과 IMF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운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

FILA코리아의 윤운수 회장과 필자의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의 교훈이다.

어찌보면 참 멋있는 교훈이다. 고지식하기도 하다. 핑핑 돌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지침과 지혜 같기도 하다.

고등학교 선배인 C대학 경영학교수가 필자에게 모교 교훈에 대해 농담어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 기억난다. 깨끗하라고 해서 적당히(?) 뽕땅도 못 쳐서 가난하다. 부지런하자고 해서 삽살개처럼 뛰어 다녔지만 한탕 크게 먹을 눈이 부족해진 꼴이 되었다. 그리고 책임지키자니 억울하게 또는 자발적으로 덤테기 쓰기 일쑤여서 영 손해가 막급하다는 것이다.

또 도약하려는 뻔뻔스러움이 없어서 두목은 거의 없고 맨 참모들뿐이라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럴싸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냉철을 필자는 지켰다. 최근 언론계에서 크게 활약하던 고교선배는 새 시대에는 개성과 멋을 존중하는 것으로 교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필자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오히려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는 한 고등학교 교훈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됐다.

만약 한국 국민 모두가 교훈을 지켰더라면 IMF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머니 게임(Money Game)에 미친듯 카지노 판처럼 되어 버린 투기적 세계자본의 횡포를 감당키는 어쨌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국인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더럽고, 뻔뻔스럽게 게으르면서 자기 뒤편을 챙기려고 억지를 쓰고, 책임지키지 않는" 과거와 현재의 상당수 한국인의 나쁜 습성과 관행은 적어도 아니지 않겠는가.

기업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투명성'이다. 외국인들이 한국기업의 장부나 자료를 믿지 못한다는 불평이 극심하다. 그들만이 아니다. 심지어 자기회사의 장부조차 믿지

못하는 재벌이 존재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들릴 정도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투성이다. 정결하지 못하고 비리투성이다. 속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이며 어둠이란 얘기다.

한국은 유리지갑처럼 소득을 깡그리 노출 당하는 월급쟁이 외에 변호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와 자산 소득자들이 대부분 속임수를 써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희극적인 나라다.

부지런하자. 있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근면은 그나마 부유의 어머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회를 잡는 씨앗이다. 깨끗하고 부지런할 때 새롭고 진정한 도전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게 역사적 진실이다. 시건방지며 게으르게 되면서 제몫만 챙기려는 뻔뻔함이 너와 나 모두에게 더해진 것이 아닌가 반성해볼 일이다.

책임 지키자. 책임 경영이 화두가 된 요즘이지만 정말로 책임 지키는 꼴 한번 보기 힘들다. 이모저모로 감옥에 가는 높으신 분들의 매양 같은 소리는 '보복이고 재수가 나빠서'이다. 그것도 톡하면 특별사면이라해서 흐지부지되는 실정이다.

D재벌 총수의 책임을 물어 퇴진 논란이 있을때 일이다. 그 재벌총수가 책임질(?) 경우는 정,재계의 높으신 분들 상당수가 줄줄이 성할 수 없다는 협박(?)을 대변하는 중요경제단체 간부가 존재하는 나라다. 이 판에 필자는 온 나라를 향해 평범하지만 삶과 모든 일에 기본이 되는 모교의 교훈을 고래고래 외치고 싶다.

덧붙여 말하고자 한다. 건전한 경영이란 기기묘묘한 고등수학이 아니다. 누구나가 납득하는 평범하고 씬플(Simple)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12일 (금)	3월 15일 (월)	3월 16일 (화)	3월 17일 (수)	3월 18일 (목)
미	달	러 (USD)	1137.30	1130.70	1135.90	1132.50	1131.80
일	본	엔 (JPY)	1047.58	1036.15	1040.82	1039.04	1039.92
캐	나	다 달 러 (CAD)	907.63	906.41	910.32	910.48	912.78
홍	콩	달 러 (HKD)	146.57	145.65	146.29	145.84	145.74
위	안	화 (CNH)	174.84	174.50	174.61	174.29	174.04
유	로	화 (EUR)	1362.94	1351.41	1354.67	1348.13	1356.12
호	주	달 러 (AUD)	885.79	877.31	880.04	877.18	883.14
싱	가	폴 달 러 (SGD)	849.02	840.58	844.38	842.04	844.8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6.88	274.58	276.21	275.28	274.61